

되새기는 '혁명시인'의 저항정신

"고학력 상류층 민낯 그랬죠"

김남주 시인 30주기...해남서 추모문학제

1980년대 반독재 투쟁 앞장 노래·연극·전시 등으로 뜻 기려 28~29일 문화예술회관 일원 등 월말까지 걸개 시화전·아카이브전

"이 무대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뿔 뿔에서 울어에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벼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광주 중외공원 아래쪽 비탈에는 김남주(1946~1994)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있다. 시와 삶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김남주 시인의 시 '노래'가 새겨져 있다.

김남주는 80년대를 운명으로 밀고 나간 '전사시인'이었다. 울곡은 목소리로 한국문단을 일깨운 '민족시인'이자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며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혁명시인'이기도 했다.

올해는 김남주 시인이 타계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 세대는 시간이 흘렀지만 고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오늘의 암울한 현실을 질타하는 것 같다.

김남주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제가 고향 해남에서 열린다.

민족시인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은박지에 새긴 사랑'을 주제로 추모문학제를 펼친다. 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유스호스텔, 김남주 시인 생가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문학제는 시노래극, 학술심포지엄, 청년문학제, 걸개시화전, 아카이브전, 팜플 해남 순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예정했다.

행사를 기획한 김경운 기념사업회장은 "올해로 시인이 타계한 지 30년이 흘렀다. 오늘의 국내외 여러 상황은 시인의 빈자리가 느껴질 만큼 크게 다가온다"며 "이번 문학제는 시인으로 혁명가로 한 인간으로 역사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고인의 삶과 뜨거웠던 민중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남주 시인 30주기를 맞아 추모문학제가 28~29일 해남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렸던 문학제 모습. <김남주기념사업회 제공>

먼저 28일 오후 6시 30분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노래극 '은박지에 새긴 사랑'이 무대에 오른다. 유신독재에 맞서 싸운 시인이자 혁명가인 시인의 10여 년 감옥생활과 그를 옥바라지했던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담았다. 총체시극으로 구성된 시노래극은 인물의 대사, 노래, 춤 등이 모두 김남주 시인의 시로 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작품은 극단 토박이와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시노래패 '담소'와 가수 백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연출은 토박이 박정은 감독.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김남주 30주기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문학과 자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평론가 염무웅(영남대 명예교수), 서울대 방민호 교수, 충남대 박수연 교수 등 국내 작가들과 몽골의 남바프레브 시인, 베트남 호찌민시 국립대학교 쟈티미안 교수 등 국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또 28일 밤 9시에는 해남유스호스텔에서 전국 한국작가회의 회원 200여명이 모여 '김남주 30주기 추모 전국 문학인의 밤' 행사를 펼친다.

다음 날 29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김남주생가에

서 '김남주 시인 30주기 추모·계승 청년문학제'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익전문화재단 '길동무' 주관으로 열린다. 송경동, 나희덕 시인 등이 참여하며 황지우 시인의 헌시 낭독 등이 준비돼 있다.

한편 추모 걸개 시화전도 오는 24일 개막해 30일까지 해남군민광장(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한국작가회의 전국 지회 지부 회원 작품들을 통해 시인의 뜨거웠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모 아카이브전도 오는 30일까지 땅골순례문화관(고산유적지 내)에서 펼쳐진다. 김남주 시인의 옥필 원고를 비롯해 은박지 시, 사진 유품 추모 영상 등이 전시된다.

이밖에 땅골 해남 순례도 계획돼 있다. 익전문화재단 길동무 주관으로 김남주 생가부터 고장희생가, 땅골순례문화관, 대흥사, 다산초당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운 회장은 "유우광 등에 쓰여 세상에 알려진 고인의 옥중 시편 등은 암울했던 80년대를 대변하는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인 김남주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물론 자유와 통일, 민중에 대한 사랑을 운문으로 노래한 아름다운 전사시인이었다"고 회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보통의 가족' 설정구

무서운 범죄 저지른 고교생 자녀 해결책 놓고 형제 부부 이야기 그려 "형제로 만난 장동건과 호흡 척척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람했으면"

허진호 감독의 신작 '보통의 가족'은 변호사 재완(설정구 분·사진)과 그의 동생인 의사 재규(장동건), 그리고 재완의 아내 지수(수현)와 재규의 아내 연경(김희애)의 이야기다.

네 사람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 극의 중심에 있다. 고교생 자녀가 뜻하지 않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 그러면서 단정한 겉모습에 숨겨진 민낯을 드러낸다.

베테랑 배우 설정구, 장동건, 김희애와 할리우드에서 연기력을 다져온 수현이지만, 이 장면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25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설정구는 '보통의 가족'의 식사 장면에 대해 "다들 바짝 긴장해 '초집중'을 하면서 찍었다"며 "컷"도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식사 장면에서 네 배우는 대사뿐 아니라 섬세한 표정 연기로 캐릭터의 내면을 표현한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포착하는 이들의 얼굴은 때때로 섬뜩한 느낌을 준다.

'보통의 가족'에서 설정구가 연기한 재완은 잘나가는 변호사다.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철하지만, 법률가로서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극 중 재완은 자녀 문제에 관해 판단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설정구는 "심경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완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판단의 변화로 비치는 것도) 이성적으로 계속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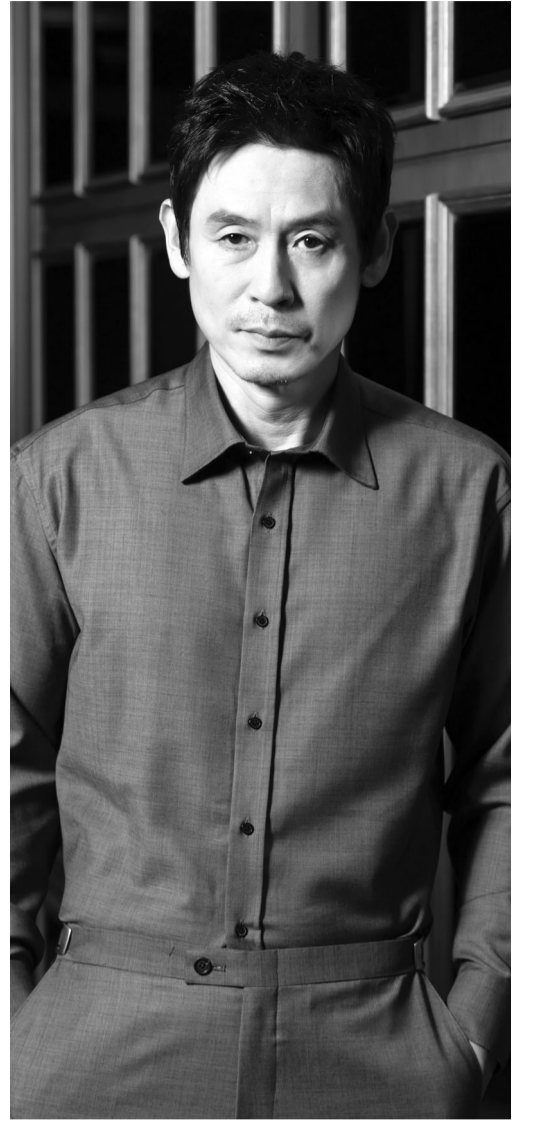
설정구는 재완이 자신의 실제 성격과 잘 맞았느냐는 질문에는 "난 그렇게 냉정하지 못하다. 차가워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차가운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제로 나온 설정구와 장동건은 호흡이 척척 맞는다. 설정구는 "평소 '형', '동생' 하면서 지낸 게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대표적인 미남 배우인 장동건과 함께 캐스팅됐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회고하면서 "동건이랑 형제? 사람들이 믿겨요?"라고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기했다. 형제도 얼굴이 다르지 않나"라며 웃었다.

'보통의 가족'은 어두운 분위기의 스릴러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꽤 많다. 특히 김희애가 자연스럽게 웃음을 끌어내곤 한다.

지난해 영화 '더 문'에 이어 올해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에서도 김희애와 호흡을 맞춘 설정구는 김희애에 관해 "간간히 보이지만, 털털하고 의외로 허술한 면도 있다.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다"라고



고 말했다. 설정구는 캐스팅 제안을 받으면 캐릭터보다는 작품이 재밌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지만, '보통의 가족'은 전적으로 허 감독에 대한 신뢰로 출연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보통의 가족'은 누가 감독을 맡느냐에 따라 작품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다"며 "허 감독이 모든 작품에서 보여준 섬세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보통의 가족'은 고학력 상류층의 위선뿐 아니라 한국의 교육 문제에 조명한다. 설정구는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 꼭 봤으면 하는 영화"라고 했다.

'보통의 가족'은 당초 다음 달 9일 개봉 예정이 었지만, 16일로 한 주 미뤄졌다. 지난해 제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영화는 다음 달 2일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됐다.

설정구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호평받은 기억을 떠올리며 "영화의 충격적인 결말에 토론토에서도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2000)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설정구는 '살미도' (2003), '공공의 적' (2002), '그놈 목소리' (2007), '해운대' (2009) 등 흥행작을 잇달아 탄생시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56세인 그는 배우로서 어떻게 평가받고 싶느냐는 질문에 "나이를 잘 먹어가고 싶다. 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나"라며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늘 그렇게 답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민기·한지현, 의사·형사 '호흡'

KBS '페이스 미' 11월 첫방

배우 이민기와 한지현이 새 드라마 '페이스 미'에서 의사와 형사로 호흡을 맞춘다.

KBS는 오는 11월 중 처음 방송 예정인 수목드라마 '페이스 미'에 배우 이민기, 한지현, 이이경, 전배수를 캐스팅했다고 26일 밝혔다.

드라마는 냉정한 성형외과 의사와 열정적인 강력계 형사가 우연히 공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스

며드는 과정을 그린다.

이민기는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 차정우를 연기한다. 환자의 외상을 보면 사고 경위는 물론 치료 방법까지 머릿속에 그려내는 능력을 갖췄다.

한지현은 강력계 에이스 형사 이민형 역을 맡는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게 된 의사 차정우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가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는 상처를 알게 된다. 이이경은 차정우의 가족 같은 소꿉친구 한우진을, 전배수는 차정우의 따뜻한 멘토



이민기

한지현

김석훈을 연기한다. 드라마 '개소리' 후속으로 방송된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계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대 연 건 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맞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우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 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요미,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취업,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리빌
소속,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 김기범 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